

# '뉴 마린보이' 황선우 결승 진출...오늘 메달 도전



새로운 '마린보이'가 탄생했다. '한국 수영의 미래' 황선우(18·서울체고)가 박태환에 이어 9년 만에 올림픽 결승에서 레이스를 펼친다.

황선우는 26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경연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5초53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2조 5위, 전체 6위에 이름을 올린 황선우는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하면서 2012년 런던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경연 종목 결승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됐다.

황선우는 27일 오전 10시 43분 결승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황선우는 전남 치러진 예선에서 '깜짝 실력'을 발휘했다.

3조 5번 레인에서 물살을 가르 그는 1분44초62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한국신기록과 세계주니어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예선에 참가한 전체 39명의 선수 중 1위로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황선우의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나온 1분44초96. 당시 세계주니어기록을 작성했던 그는 두 달 만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0.34초 줄였다.

수영 자유형 200m 전체 6위로 박태환 이후 9년 만의 쾌거 예선예선 한국신기록 경신도

또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작성한 1분44초80을 0.18초 앞당기면서 11년 만에 한국 기록도 새로 썼다.

황선우가 27일 출발대에 서면 남유선과 박태환에 이어 올림픽 경연 종목 결승에서 뛰는 한국 세 번째 선수가 된다.

2004년 남유선이 아테네 대회 여자 개인혼영 400m에서 한국 수영 선수 첫 결승 진출을 이루며 7위를 기록했다.

이후 박태환이 바통을 이어받아 2008년 베이징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 진출했고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까지 이뤄냈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은메달도 목에 걸었다.

2012년 런던 대회에서도 박태환은 자유형 400m와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특히 자유형 400m 은메달은 예선 실력 뒤 번복이라는 '실격 해프닝' 끝에 만든 메달이었다.



26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에 출전한 한국 황선우가 힘찬 스타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은 런던 대회에서는 자유형 1500m 결승에도 출전해 4위를 차지했다.

한편 황선우는 이날 2조 4번 레인에서 물살을 갈았다.

3번 레인에는 올해 세계 랭킹 1위 기록(1분44초

47)에 빛나는 덩컨 스콧(영국)이 5번 레인에서는 올해 세계 랭킹 2위 기록(1분44초58)을 가진 톰 딘(영국)이 레이스를 펼쳤다.

0.60의 가장 빠른 반응 속도로 레이스를 시작한 황선우는 50m를 24초 42, 2위로 통과했다. 이후

50m별 구간별 26초89, 26초88, 27초34의 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150m 구간에서 3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분44초62, 5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전체 1위 스콧의 1분44초60에 0.93초 뒤진 기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서정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기체체조 단체전 예선 도마 종목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대 이은 '도마 가족' ...결선 오른 여서정

전체 5위로 진출...8월 1일 결선 아버지 여흥철 이어 25년만에 일본선 유도 남매 나란히 금메달

대를 이어서, 남매가 동시에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지난 25일 '가족'이 2020도쿄 올림픽의 키워드가 됐다.

이날 체조에서 대를 이어 결선에 진출한 선수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도마 황제'로 이름을 날렸던 여흥철(50) 경희대 교수의 딸 여서정(19·수원시청)이었다.

여서정은 여자 기체체조 단체전 예선 도마 종목

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800점을 기록하며, 전체 5위로 8명에게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와 함께 여서정은 25년 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올림픽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여흥철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독자 기술도 개발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도마 황제'였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2연패를 달성한 그는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완벽한 연기 뒤 아쉽게 착지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금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다.

그리고 25년 뒤 '도마 공주'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된다.

여서정은 8월 1일 오후 5시 45분 결선 연기에 나선다.

유도에서는 '남매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같은 날, 몇 분 차이를 두고 이뤄진 일이라서 더 화제가 됐다.

주인공은 일본의 아베 히후미(24)와 아베 우타(21) 남매다.

2018년 유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남매 동반 우승을 거뒀던 두 사람은 올림픽에서도 '남매의 힘'을 보여줬다.

여자 52kg급에 출전한 동생 우타가 먼저 프랑스의 아방뮈 뷔샤르를 한판으로 꺾고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이날 유도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남자 66kg급 경기에서 오빠 히후미가 조지아 바자 마그벨라슈빌리를 절반으로 제압하면서 동반 금메달을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원정 무패' 계속된다

김현욱·발로텔리 골로 부천에 2-1 승...K리그2 2위로 복귀

전남드래곤즈가 '원정무패'를 이으면서 2위 탈환에 성공했다.

전남은 지난 2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2021 22라운드 부천FC와의 김현욱과 발로텔리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2020시즌부터 이어진 원정 무패 기록은 '20경기'로 연장됐다. 또 승점 3점을 챙기면서 2위 자리로 복귀했다. 1위 김천상무와 승점 37로 같지만 득점에서 밀려 2위가 됐다.

전반전 부천의 공세에 시달리던 전남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스피드를 살려 돌파에 성공한 김현욱이 김현욱에게 크로스를 올렸다. 노마크 상태였던 김현욱이 뛰어올라 머리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후반 11분 이변에는 발로텔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김병오가 골문 쪽으로 슈팅을 했고, 발로텔리가 다시 골을 터치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15라운드 서울이랜드전 헤트트릭 이후 7경기 만에 기록된 발로텔리의 시즌 8호골.

전남은 후반 24분 박창준에게 실점을 한 뒤, 후반 35분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너킥 뒤 혼전 상황에서 실점하며 승부가 2-2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합과정에서 상대의 부상 파울이 나왔다. 판정이 나오면서 노골이 선언됐다.

이후 전남은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원정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전남은 8월 1일 오후 7시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원정무패' 연장과 1위 탈환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호주 교포 이민지,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이정은 연장전 끝 아쉬운 준우승

호주 교포 이민지(25)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50만 달러) 정상에 올랐다.

이민지는 26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폴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연장전에서 이정은(25)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정은에 7타 뒤진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민지는 7타를 줄였고, 버디와 보기를 5개씩 적어낸 이정은과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파5)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이민지는 6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을 홀 3m 옆에 떨어뜨려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극을 마무리했다. 우승 상금은 67만5000 달러(약 7억7000만원)다.

이정은은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려 그린에 올라

가기도 전에 허무하게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정은은 보기를 적어냈다.

이민지는 이번이 LPGA투어 통산 6번째 우승이지만 메이저대회에서는 처음 거둔 우승이다. 이민지는 도쿄 올림픽에 호주 대표로 출전한다.

5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섰던 이정은은 전반에 보기 5개를 쏟아내는 난조를 후반 버디 5개로 극복했지만, 끝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 대회에서 18홀 최소타 타이(61타)와 36홀 최소타(127타) 기록을 세웠고 생애 첫 우승(2019년 US여자오픈)과 두 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에서 따내는 진기록을 기대했던 이정은은 시즌 최고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4타를 줄이며 한때 선두를 달렸던 노예림은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가 빗나가 1타차 3위(17언더파 267타)에 올랐다. 전인지(27)가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6위(13언더파 271타)를 차지했고 5타를 줄인 양희영(32)이 공동 10위(11언더파 273타)로 올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위도우
2관	블랙 위도우
3관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아이스 로드
4관	보스 베이비 2
5관	보스 베이비 2
6관	랑중
9관	랑중
7관 씨네키움	쿠루엘라, 더 레지드: 악령의 저주, 워스, 칸저링3: 악마가 시켰다
8관 씨네키움	아이스 로드, 발신제한, 나만 보이니, 옥스포드 살인사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